

8.15~17일 연휴 기간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응 태세 점검

- 15일 오후부터 남부지방 중심 최대 150mm 이상 많은 비 예보
- 위험지역 사전 통제, 취약지역 주민 대피 적극 실시 등 지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내일(15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23개 중앙행정기관(국조실, 행안·과기정통·교육·기후·국토부 등), 16개 광역 지방정부, 5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기상청에 따르면, 15일(토) 오후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어 16일(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8.15~16일 예상 강수량(mm): 전라권 30~80(많은 곳 전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120 이상), 경남권 50~100(많은 곳 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150 이상), 제주도 30~80(많은 곳 산지 150 이상)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이번 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상황 관리와 보고체계 확립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8일 산지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류부 계곡·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관광객이 고립된 사례를 언급했다.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과 캠핑장·야영장 등에 많은 행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위험이 우려되면 사전에 통제하고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안가에서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너울성 파도로 여행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갯바위와 방파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지역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침수가 우려될 경우 즉시 통제하는 한편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신속히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 발생지역 등은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와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을 철저히 정비해 호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호우 대비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험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등을 신속히 실시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 등 위험한 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신일철 (044-205-5230)
		담당자	서기관	현종일 (044-205-5234)
		담당자	사무관	전혜숙 (044-205-5231)

호우·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산 사 태 → 붕괴 위험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
공무원, 이·통장 등 대피 요청 시 대피소로 이동



산비탈,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하천 재해 → 휩쓸림 위험



비 오기 전 점검

야외활동 자제
물에 잠긴 길 이동 시 **발밑 조심**
비 내리기 전 배수로 점검, 비 내릴 땐 점검 자제



하천변, 배수로, 해안가 근처 **피하기**

지하공간 침수 → 침수 위험



비 내리기 전 배치

지하공간에서 **즉시 대피**,
수방자재 **사전 배치**
침수 위험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 비 내리기 전 이동



지하공간, 지하차도, 침수도로 **피하기**

호우·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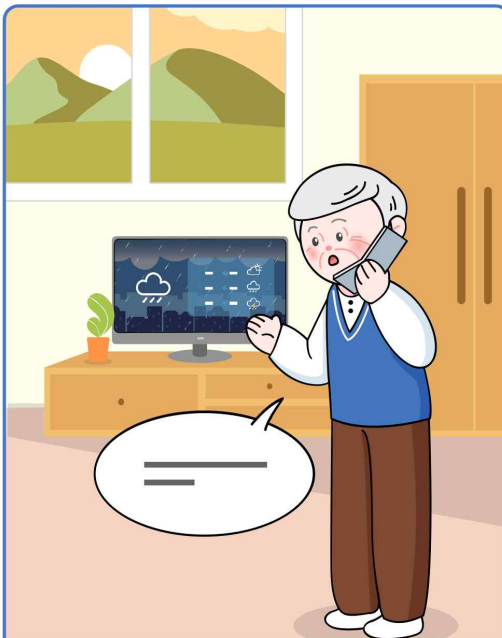
이렇게 행동하세요!

국민안전24



- ① 언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나요? → 오전 6~12시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 ② 휩쓸림이나 침수사고는 어떤 행동 중에 많이 발생했나요? → 이동하거나 재해예방 활동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 ③ 산사태로 인한 매몰사고는 어떤 상황에 많이 발생했나요? → 집안에서 일상생활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 ④ 차량은 비교적 안전할까요? → 주행중인 차량/이동 주차 중에도 인명피해가 많아요.

산지



- ① 어두워지기 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② **기상정보 확인**하고 가족, 이웃과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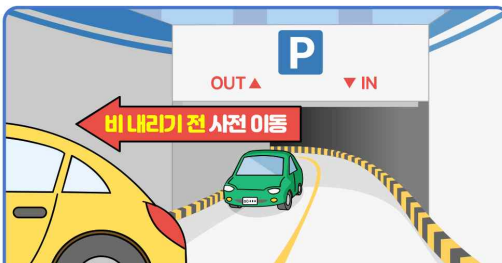
산비탈,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공무원, 아·통장 등 대피 요청 시 대피소로 이동

하천



야외활동 자제하고
하천, 해안가 근처 피하기
비 내리기 전 배수로 점검, 비 내릴 땐 점검 자제

차량



< 비 내리기 전 >
침수 위험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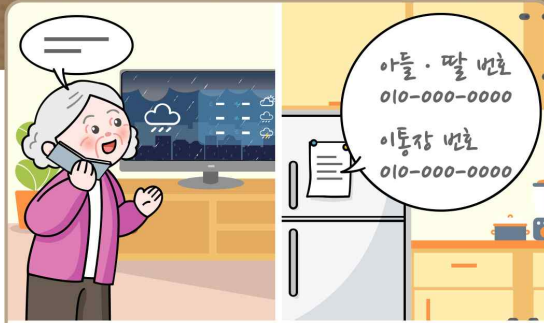
< 비 내리는 중 >
관리자의 통제를 준수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피하기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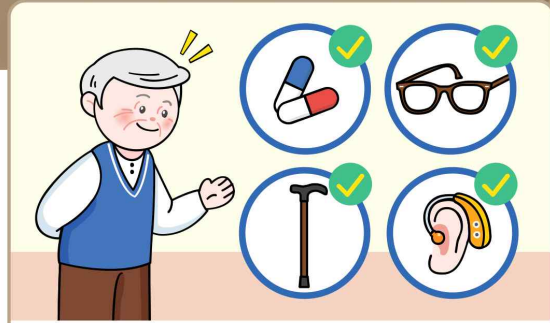
비바람 올 때
이렇게 행동하세요!



주변 어르신께 알려주세요



날씨 소식을 자주 듣고, 가족과 연락해요
가족, 이웃, 이·통장 전화번호 집에 붙이기



먹는 약, 보청기, 지팡이 미리 챙겨요
안경, 전동휠체어 배터리 등 미리 확인



대피소와 대피소 가는 길 미리 알아봐요
가까운 대피소 읍·면·동사무소에 물어보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요
이웃과 함께 마을회관 등으로 미리 이동하기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이동해요
공무원, 이·통장이 위험하다고 하면
마을회관 등 대피소로 이동하기



하천 주변, 산길, 논, 배수로는 위험해요
배수로/논둑, 하천/해안가, 산 주변 등
위험한 장소에 접근금지

낙뢰

이렇게 행동하세요!

국민안전24



**30 - 30
안전 규칙**

번개가 친 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대피
마지막 천둥소리 후 30분 기다리고 이동



낙뢰 예보 시 야외활동 자제
등산, 낚시, 골프, 사이클, 러닝 등 자제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대피
낮은 자세로 사람 간 5~10m 떨어져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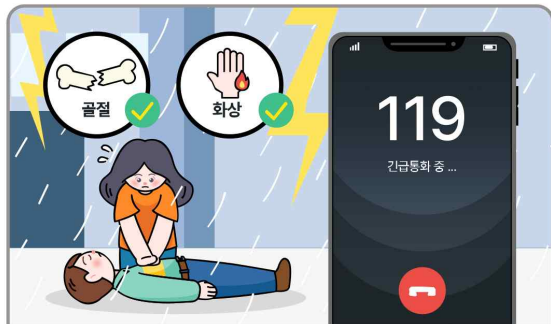
나무 아래, 전신주, 물가 근처 피하기
산 위 암벽, 높은 구조물, 해안가, 운동장 등 피하기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 사용 자제
창문, 자전거, 금속물체 등 주의



전자제품, 흐르는 물 사용 자제
전자제품 사용 시 감전 주의 / 샤워, 설거지 등 물 사용 자제



피해자 발생 시 119 신고 후 응급처치
호흡/맥박 확인 후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실시
화상, 골절, 시정각 확인